

10월5일(월)/누가복음 14:34-35

제목: 성도는 조미료입니다.

어떤 물건이 그 지음 받은 본질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35절)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소금이라고 하셨다.(34절) 소금은 여러 용도가 있지만 특히 조미료로 사용된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느끼해지는 음식이 있다. 조미료는 이런 음식에 효과있다. 성도는 항상 조미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의 용모와 인격과 신앙을 통해 항상 타인의 입맛을 북돋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이런 매력적인 맛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성도는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한 성품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세상에 색다른 맛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성도는 타인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적인 신앙행동, 너무 과하게 자기 신앙을 강요하는 것, 타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 오만하고 도도한 말투 등은 항상 타인을 구역질나게 만든다. 성도의 말투와 얼굴 표정과 인격과 신앙은 조미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맛 짭 나는 조미료이다.

10월6일(화)/누가복음 15:1-7

제목: 항상 추격하시는 예수님

목자는 백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아흔 아홉 마리를 등에 남겨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닌다.(4절) 이 잃은 양 비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목자 예수님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다.(7절) 본래 이스라엘에서 양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동재산이었다. 어떤 목자가 양 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아직도 산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전해지면 온 마을은 긴장한다. 그러다가 멀리서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를 보면 온 마을은 기쁨의 도가니에 빠진다.(6절)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시다. 그는 추격자이시다. 그는 잃어버린 양의 발자국을 추격하는데 명수이시다. 그러므로 혹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추격자 예수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잃은 양의 전 일생을 추격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내 가족 혹은 내 동료 중에 혹시 길 잃고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예수님에게 연락바랍니다.

10월7일(수)/누가복음 15:8-10

제목: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였는가?

열 드라크마의 동전을 가진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 쓰고 있다.(8절) 왜 이렇게 애를 쓸까?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라는 표시는 은사슬에 열 개의 은전을 꿰 머 리장식이었다. 이 열 개의 은전은 자기가 유부녀라는 정체를 알려주는 표시였다. 그러므로 열 개의 은전 중 한 개를 잃어버려도 그것은 결혼 한 여인으로서 대단히 수치였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이 비유는 죄인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10절)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자이다. 만약에 내 곁에 잃은 양이 있는데도 그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치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자격미달이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였는가?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할 잃은 양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는 표시는 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증명된다. 은전 하나를 잃으면 부인자격이 없듯이 잃은 양을 방치 하면 예수의 신부의 자격이 없다.

10월8일(목)/누가복음 15:11-19

제목: 발목 잡힌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기 재산의 상속분을 미리 아버지에게 요구하였다.(12절) 그는 아마 돈이 쓰고 싶어 안달이 났던 모양이다. 그는 아버지가 죽고 상속받을 때까지는 도저히 돈이 쓰고 싶어 기다릴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돈을 챙기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13절) 허랑방탕은 죄악의 한계선을 넘었다는 뜻이다. 타락해도 보통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돈은 마음대로 쓰지 못했지만 방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께 다 받아 챙겨 나간 뒤에는 죄의 시궁창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본성이지 않겠는가? 인간에게 너무 풍족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다 받으면 인간은 항상 한계선을 넘어간다. 다 받으면 인간은 항상 품행이 불량해진다. 다 받으면 인간은 항상 실수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항상 다 안 주신다. 다 안주는 것이 사랑이고 다 안주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은 항상 40%를 빼고 주신다. 이 부족한 40% 때문에 성도는 항상 겸손해진다. 이 40%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발목 잡혀 산다. 이렇게 발목 잡혀 사는 것이 은혜이다.

10월9일(금)/누가복음15:19-32

제목: 탕자의 형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형은 못마땅히 여겼다. 특히 형은 돌아온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에 더 큰 불만을 가졌다. 동생이 창녀와 생활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동생을 ‘창녀와 함께 뒹굴다가 온 사람’(30절)으로 규정하였다. 동생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형은 자기가 단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었던 자라고 자기 의를 내세워 동생의 방탕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29절) 형은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이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차 넣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 준다. 인간의 속성 중 하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늑대가 되는 속성이다. 이 비유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 속에 사는 인간들은 늘 상처받고, 배신당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인간사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항상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한다. 만약 그런 것이 없는 하루를 산다면 참 이상한 일인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